

21~23일 강풍·풍랑·너울 유의



[4월 21일~23일 기압계 현황]

- 제주지방기상청(청장 전재목)은 4월 21일(금)과 23일(일) 사이 북쪽 고기압과 제주도남쪽 저기압 사이에서 형성된 기압차이에 의해 제주도에 강한 바람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고,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.
- (강풍) 21일(금)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70km/h (20m/s)이상(산지 90km/h(25m/s)이상)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.

- (풍랑) 현재, 제주도남쪽바깥면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(20일 01시) 중이며, 21일(금) 오후부터는 제주도남쪽안쪽면바다와 남해서부서쪽면바다, 제주도앞바다에도 바람이 30~60km/h(9~16m/s)로 점차 강해지고, 물결이 1.5~4.0m(면바다 최고 5.0m)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.
 - 특히, 21일(금) 늦은 밤부터 면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아지면서 풍랑경보로 변경 가능성이 있겠으니,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(황사) 오늘(20일) 오전에 몽골 동부와 중국 북동부에서 황사가 발원하였으며, 발원한 황사가 북동풍을 타고 유입되어, 제주도에는 내일(21일)과 모레(22일) 사이 황사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.
 - 특히, 국내 영향 범위와 농도 수준, 그리고 지속시간은 황사의 추가 발원여부와 기류에 따라 유동적이나,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미세먼지 예보(매일 05시, 11시, 17시, 23시 발표, 국립환경과학원)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
-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“내일(21일)부터 글피(23일)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, 간판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가 필요하며,
 - 또한, 높은 물결에 의한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고,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니,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,
 - 특히, 23일(일)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(대조기)이며, 동풍에 의한 너울이 예상되니 갯바위 낚시객, 해상어업 활동 등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 - 또한, 21(금)과 22일(토) 사이 황사 영향이 있겠으니,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	김충기 (064-909-3920)
		담당자	전문관	한경훈 (064-909-3920)